

인간은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정체성을 추구한다. 사람들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승인을 받고 싶어하며, 따라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여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는 인간 행위 기저에 숨어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Sedikides(1993)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하고, 자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는 인지적 보수성을 가질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기고양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자기고양의 동기가 가장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찍이 W. James (1890/1983)는 이러한 동기를 “자애(self-love)”라고 불렀으며, 100년이 지난 후 Greenwald(1980)는 “자기고양주의(beneffectance)”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동기는 Rogers(1959)도 강조하였다. 자아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데, 타인에게 긍정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자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취를 강조함으로써 자존감과 자기 일관성을 유지시키도록 만들 뿐 아니라 실제 성공을 만드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자기 긍정성의 동기는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자아에 대한 긍정적 착각현상(positive illusion)은 자아관련 정보처리 양상 중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Alicke(1985)는 성격 형용사를 제시하고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을 지적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형용사를 부정적인 형용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자신의 특성으로 지적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특성과 능력에 대해서도 나타나, 자신을 타인보다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Taylor & Brown, 1999). 한편 귀인연구들은 자기 긍정성이 귀인편향의 형태로 나타나 자신의 수행의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귀인을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귀인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유지함을 밝혀왔다(Greenwald, 1995). 또한 자기 긍정성의 동기는 자신의 약점을 믿지 않고 약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Myers, 1996). 자기제시 연구들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좋은 특성과 능력을 내 보이려고 하며(Baumeister, 1998; Kowalski & Leary, 1990), 자신이 낮게 평가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함을 밝혀 왔다(Hewitt, 2000).

자기 긍정적 경향성은 집단 정체성에도 반영된다고 지적된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만 긍정적인 가치감을 가지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독특한 집단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Trew & Kremer, 1998).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고양 때문에 집단 동일시나 내집단 선호가 일어나고 타 집단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하게 됨을 지적한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보이게 되며, 긍정적 사회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Pickett, Bonner & Coleman, 2002). 따라서 내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합이 자동적으로 일어남을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Dovidio 등(1986)은 백인들을 상대로 “검은”과 “하얀”을 점화단어로 제시한 후 백인과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반응하는 속도를 측정된 결과, “하얀”이 점화된 경우 긍정 속성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검은”이 점화된 경우에는 부정 속성에 빠르게 반응함을 발견하였다. 즉 백인들은 내집단 선호를 보이는

동시에 흑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Cooley(1956)나 Mead(1934)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자아상은 타인, 특히 유의미한 타인의 평가를 수용하여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개인이 속한 사회적인 범주나 집단 문화 내에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체성 역시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즉 사회가 그 개인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가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긍정적 자기 제시가 타인에 의해 수용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나타날 때에는 오히려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성과 수용 가능성 간에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Schlenker, 1986). 그렇다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고정관념의 대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긍정적 경향성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부정적 경향성이 나타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자기긍정성 및 내집단 긍정성

사회적인 평가에서 불이익을 겪으며, 사회적인 파워나 지위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도 자기 긍정성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여성들은 성 고정관념의 피해자의 입장에 놓여있고, 사회 문화적으로 무시당하고 평가절하 되므로 자기 긍정성이나 여성 집단에 대한 긍정성은 낮고 오히려 남성 집단에 대한 긍정성이 높을 것인가?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적 입장의 학자들은 여아가 남아의 성기를 발견하면서 무의식적 열등감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여성을 결핍된 존재로 규정하며, 여성들의 자아상이 부정적일 수 있

음을 강조해 왔다. 이후에도 많은 심리학 이론들은 여성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평가 절하되어 왔으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자존감은 손상되고, 더 많은 우울증을 겪는다고 주장해 왔다(Major et al., 1999). 이와 관련하여 Boldry와 Kashy(1999)는 자기 집단 선호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의 지위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즉 높은 지위의 집단만이 자기 집단 선호와 자기 집단에 대한 긍정성을 보이고, 낮은 지위의 집단들은 타집단 선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존감은 손상되지 않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들도 누적되고 있다. Crocker와 Major(1989)는 20년 이상의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 여성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흑인들의 자존감은 백인과 같거나 오히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은 고정관념의 불리한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도 내집단 선호가 나타남을 입증한다. Fazio 등(1995)의 연구에서는 인종범주를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긍정적 부정적 성격특성을 물었을 때, 백인은 흑인이 점화되었을 때 부정반응이 빠르고, 흑인은 백인이 점화되었을 때 부정반응이 빠름을 발견하였다. 성별과 관련된 내집단 선호도도 나타나, 사진 분류나 대명사 분류에서 나타났다. 성에 따라 사진을 분류하게 했을 때 동성 사진을 이성 사진보다 빨리 분류했으며, 직업 분류에서도 동성효과가 나타났다(Banaji et al. 1996).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의 대상이나 낙인자는 자존감이 약하고 내집단 선호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흑인들이나 여성들도 내집단 선호를 보이며, 자아 긍정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Nelson, 2002).

최근의 자아해석(self-construal) 이론에서는 여성들의 자아해석 양상은 남성들의 독립적이고 독립특성을 강조하는 자아해석과는 달리 상호의존적 해석을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Cross & Madson, 1997; Cross, 2002). 이 입장에서는 여성들은 타인들의 평가에 매우 의존적이어서, 타인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즉 여성들은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 좋게 느끼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나쁘게 지각한다는 것이다(Cross & Madson, 1997). 그렇다면 여성들은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민감하며, 특히 긍정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에 더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2001)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 단어에 대해 반응할 때 긍정적인 비교정관념 단어나 부정적인 단어들에 대해 반응할 때보다 더 빨랐고, 남성들보다 여성에 대한 긍정성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내집단 선호현상은 긍정적인 고정관념 내용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내집단 긍정성은 고정관념의 내용 중에 부정적인 내용 뿐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이는 내용들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Glick과 Fiske(1999)는 고정관념은 전형적으로 두 차원을 따라 집단들을 범주화하는데, 능력차원과 호감차원이라고 지적한다. 유능성의 지각은 그 집단의 지위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호감은 집단 간 경쟁이나 협동이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성은 전형적으로 능력은 없지만 착한 집단으로, 남성은 유능하지만 착하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 고정관념의 내용에는 호감을 갖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의 범위는 신체특성과 성격특성, 역할, 행동적 선호도, 능력 등 여러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조혜자, 방희정, 2003; Deaux & Lewis, 1983), 영역에 따라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수용하여 자기 긍정성과 내집단 긍정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도 자기 긍정성 경향이나 내집단 긍정성 경향이 강하다면, 부정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은 거부하거나 탈동일시할 가능성이 있다. Steele과 Aronson(1995)은 흑인 학생들이 고정관념의 내용중 자신에게 불리한 영역에 대해 고정관념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영역에서는 탈동일시 현상을 보이면서 그 영역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 영역이 중요하지만 자기들이나 자아정체성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Lee와 Ottani(1995)의 연구에서도 중국인들에게 내집단 지각에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고정관념으로 위협했을 때, 내집단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부정적 위협에 대해서는 내집단 동질성이 높아지고 동일시도 높아지지만, 내집단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부정적 위협에 대해서는 내집단 이질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동일시가 약화됨을 밝히고 있다. 즉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관념 위협 시에 자신을 그 집단과 심리적으로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그 영역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거나 고정관념 위협 영역의 결과의 타당성을 절감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Nelson, 2002). 특히 여성들의 자아해석 양상은 상호의존적이며 여성들은 사회나 타인들의 긍정적 평가에 민감하다는 자아해석이론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은 사회가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여성 고정관념은 수용하고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사회가 무시하는 특성내용을 담은 부정적인 여성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을 탈동일시하면서 자아를 보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낙인 집단 내에서도 집단 동일시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Doosy와 Ellemers(1997)는 동일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의 내용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집단과 연결시키고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그러하지만, 동일시를 적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과 분리시키며, 집단이 사회적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에만 동일시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탈동일시 함을 밝히고 있다. 즉 낮은 동일시자들은 더 개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동일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 내에서도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자기 긍정 경향성과 내집단 긍정 경향성이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자기 긍정성이나 고정관념은 암묵적 검사를 통해 더 예민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Rudman 등(2001)은 암묵적 연상검사(IAT)를 통해 남성/여성, 강함/약함을 범주로 사용하여 연합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여성들도 여성-강함에 자동적 연합을 보였고, 이는 높은 암묵적 자아존중감을 반영한다고 해석되었다. Greenwald와 Farnham(2000)은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여성, 동양인)의 경우에 명시적 자존감 점수는 그렇지 않은 집단(남성, 백인)보다 낮았지만, 암묵적 자존감에서는 차이가 없어짐을 보여 주었다. 한편 Aidman과 Carroll(2003)은 명시적인 방법과 암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남녀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성 정체성을 측정한 결과, 남녀 모두 자아에 대한 긍정적

연합의 선호를 보였지만, 성별과 관련된 태도에서는 여자대학생은 여성에 대한 강한 자동적 선호를 나타내고 편차가 크지 않으나 남자 대학생들은 성 편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기 긍정성은 남녀 모두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성 정체감에서는 여성의 성 정체감이 더 확고하고, 더 동질적이었다. Greenwald 등(2000)은 이러한 내집단 선호 편향은 자아정체성과 자기긍정성의 연합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본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합시키려는 암묵적인 반응은 사회적 선호도에 덜 영향 받기 때문에, 자기 긍정성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자면, 성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내용 뿐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고정관념의 피해자이면서도 자기 긍정성의 편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성 고정관념의 수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 중에서도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고정관념-고 집단)과 낮은 집단(고정관념-저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 긍정성과 성 고정관념이 자아와,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적인 검사와 암묵적인 검사를 통해 탐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1. 명시적 검사를 통해 본 자기 긍정성 및 성 고정관념의 영향

연구 1은 자기 긍정성과 성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자아해석과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명시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소속

된 성별범주를 배우면서 그에 부착된 사회적 의미인 성 고정관념을 습득하고, 이러한 성 고정관념의 내용은 여러 방식을 통해 자아에 편입되고 자신과 집단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은 성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노출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 고정관념의 내용을 여성 본유의 특성인 것으로 알고 수용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여성학적 이론을 교육받은 여대생 집단에서는 의식적으로 성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고 사회가 가진 성 고정관념에 동조하는 여대생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성 고정관념 내용에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여성 집단을 동일시하는 양상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성 고정관념은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특성에 따라 각 집단의 반응양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1에서는 명시적 검사를 통해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여, 고정관념 고저집단을 나누고 다음의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여성들의 자아해석 양식에 긍정적 경향성이 나타나며,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 (2)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양식에 긍정적 경향성이 나타나며,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 (3) 여성들이 여성집단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남성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는 있는가?

기초조사

남녀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268개의 형용사를 제시하고, 각 형용사가 얼마나 여성적인지, 남성적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7점 척도 상에서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를 기초로 여성적, 남성적, 긍정, 부정적 값을 갖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여대생 113명에게 성 고정관념 질문지를 실시하여, 상위 40퍼센타일과 하위 40퍼센타일에 속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상위 집단을 고정관념 고집단, 하위집단을 고정관념 저집단으로 할당하였다. 검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은 고정관념 고집단 37명, 고정관념 저집단 35명, 총 72명이었다.

측정도구와 절차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에 대한 질문지

기초조사를 통해 나온 형용사 평정 결과를 토대로 여성관련 형용사와 남성관련 형용사 중 부정적, 긍정적 내용을 선택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때 형용사의 내용은 Ashmore와 동료들(1987), Deaux와 Lewis(1983), Fiske(1998)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성격, 역할, 능력, 행동, 외모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각 영역별로 여성집단에 대한 질문들과 남성집단에 대한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형용사들을 기초로 만들어진 질문문장은 여성집단에 대한 문항이 34개, 남성집단에 대한 질문이 34개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6점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 여성긍정: 여자는 사교적이다. 여자는

감수성이 풍부하다.

여성부정: 여자는 섀미 많다. 여자는 수다스럽다.

남성긍정: 남자는 합리적이다. 남자는 의지가 강하다.

남성부정: 남자는 음흉하다. 남자는 허풍스럽다.

고저집단의 비교를 위해 t 검정하였고, 긍정기술과 부정기술간 비교를 위해 집단내 설계의 ANOVA를 시행하였다.

결과 및 해석

자아해석 질문지

여성집단에 대한 질문지를 변형하여, 자아와 관련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자아 질문지도 성격과 역할, 행동, 능력, 외모와 관련된 문항들이 부정적, 긍정적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 긍정: 나는 사교적인 편이다. 나는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다.

부정: 나는 섀미 많은 편이다. 나는 수다스러운 편이다.

절차

검사는 소집단으로 실시되었다.

통계처리

통계 package SPSS 11.0을 사용하여,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을 성 고정관념 점수의 상하위 40%로 정했기 때문에, 여성집단에 대한 판단에서 성 고정관념의 집단간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였다. 자아해석 양상의 점수는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고정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기술과 긍정기술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자아와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과 긍정적인 기술내용에 대한 고정관념-고저집단의 반응결과가 표 1에 나와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부정기술과 긍정기술에 대한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반응은 자아해석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집단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긍정기술에 대해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고정관념 고집단의 경우 자아해석과 여성 집단에 대한 해석, 남

표 1. 자아와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긍정기술 내용과 부정기술 내용에 대한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반응

		저집단	고집단	t 값
자아해석	부정기술	3.55 (.62)	3.77 (.63)	-1.46
	긍정기술	3.95 (.78)	4.19 (.59)	-1.51
여성집단해석	부정기술	1.95 (.46)	3.61 (.49)	-14.80***
	긍정기술	2.97 (.80)	4.04 (.46)	- 6.98***
남성집단해석	부정기술	3.50 (1.06)	3.66 (.58)	-.75
	긍정기술	2.92 (.63)	4.03 (.42)	-7.98***

*** p < .0001

성집단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없지만, 고정관념 저집단의 경우 여성집단에 대한 판단과 남성집단의 긍정기술에서는 비 고정형적으로 반응하여 집단차가 나타나지만, 남성집단의 부정기술과 자아해석에 대해서는 매우 고정형적으로 반응하여 고저집단간 차이가 없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한 결과, 자아해석에서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성 주효과가 나타나($F_{(1, 70)} = 17.93, p < .0001$), 고저집단 모두 부정기술보다는 긍정기술 문항의 자아해석 점수가 높았고,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성들은 자신을 해석할 때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이건 낮은 집단이건 간에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한 문항에서는 모두 고정형적으로 반응하지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문항에서는 덜 고정형적으로 반응하였다.

한편 여성집단에 대한 판단에서는 긍정성과 집단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고($F_{(1,70)} = 9.38, p < .001$), 긍정성의 주효과도 나타났다($F_{(1,70)} = 58.33, p < .0001$), 고정관념 저 집단이 고 집단에 비해 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덜 고정형적으로 반응하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저집단 모두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수용하고 부정적

인 고정관념은 거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반면,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고정관념 고저집단 간에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_{(1, 70)} = 16.04, p < .0001$). 즉 고정관념 고집단의 남성에 대한 판단은 여성에 대한 판단과 유사하게 보여, 부정 기술문항보다는 긍정 기술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아 긍정성 편향이 나타났지만, 고정관념 저집단은 긍정 기술문항의 점수는 낮고 부정 기술문항의 점수가 높아 부정성 편향이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상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정관념 저 집단은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지만, 자아해석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든 긍정적인 내용이든 간에 더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식화된 여성들이 의식적으로는 고정관념을 거부하지만, 이미 고정형적인 특성들이 자신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의 자연화”(김선희, 2002)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한 성 고정관념이 체화(embodiment)되어 자아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자아 일관성의 동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범주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여성적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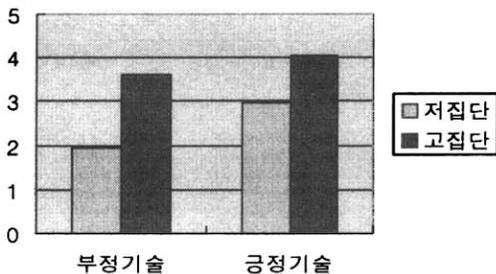


그림 1.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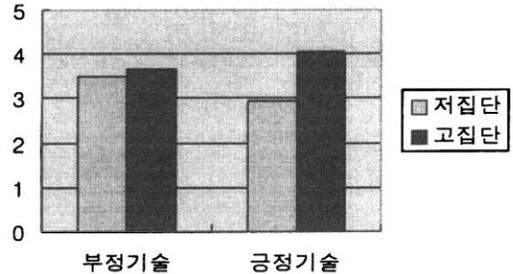


그림 2.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남성집단에 대한 해석 양상

평가된 특성들을 자신의 특성으로 수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아해석을 할 때, 여성들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차이 없이 긍정적인 고정관념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에 대해 더 고정형적으로 반응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 가능하다. 그 하나는 여성들에게 호감차원에서 사회가 적용하는 고정관념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ske 등(1999)의 지적대로, 여성은 능력은 없지만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스스로 수용하는 것이다. 다른 한 설명은 여성들이 보이는 내집단 선호도와 자기 긍정성효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여성의 긍정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동일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기제시를 향한 일반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진정한 자기가 부정적일 때에는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아의 진정성과 긍정적 자기제시와의 사이에서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Baumeister, 1998). 이러한 괴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 고정관념의 긍정적 특성을 여성인 자신의 특성으로 수용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여성을 고정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고정관념 저 집단에서조차 여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수용하고 특히 긍정적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동일시하는 현상은 긍정적 자기제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아 긍정성 현상은 그림 1에서 보여 주듯이, 내집단인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정관념 저집단은 전반적으로 고정관념이 낮고, 특히 부정적 고정관념을 거부하는데 비해 긍정적 고정관념은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Doosy와 Ellemers

(199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집단 동일시를 적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과 분리시키며, 집단이 사회적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에만 동일시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탈 동일시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해석과 내집단인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에서는 고정관념 저 집단과 고 집단이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 주었으나, 타집단인 남성집단에 대한 해석 양상에서는 고저 집단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즉 고정관념 저 집단은 여성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을 더 거부하지만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술을 더 수용하고 있는 반면 고정관념 고 집단은 남성과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과 자아 해석에 별 차이가 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신과 여성집단에 대해서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사회가 강조하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적 시선에 더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성 고정관념이 낮은 저 집단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거부하면서도 긍정적 고정관념은 수용하고 있는데 비해,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정관념을 적용하면서도 긍정적인 고정관념보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낮은 여대생들의 의식화된 반응양상을 매우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즉 이들은 전반적인 성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과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 사회 정체성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Tajfel & Turner, 1986) 자신의 내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타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러한 내용의 고정관념

의 수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여성들은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므로 고정관념을 자아에 수용하는 동시에, 자기 긍정 경향이 강하므로 특히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에도 고정관념 고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아와 여성 집단에 대한 해석 긍정성 편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 집단에 대한 해석에는 고정관념 고 집단은 남성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보이지만,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자기 긍정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아해석과 남성 집단, 여성 집단의 해석에 각기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과 자아 긍정성은 개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성 고정관념은 매우 어려서부터 성별범주를 배우면서부터 습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이후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어 왔다(Fiske, 1998). 그러나 자아를 보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자아 긍정성은 성 고정관념보다도 더 우선하고, 강력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1에서는 긍정성과 성 고정관념이 혼입되어서 어떠한 것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판단할 때, 어릴 때부터 습득한 성 고정관념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자기 긍정성이 더 우선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 집단에 대해서 나타난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성 고정관념 저집단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고, 특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아해석은 매우 고정형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성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반응은 의식적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암묵적으로는 수용하기 때문에 자아에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서도 성 고정관념이 고저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또한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자기 긍정성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모두에 대한 긍정성 효과가 암묵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각각 분리하여 알아봄으로써, 자아긍정성과 성 고정관념의 우선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2. 암묵적 검사를 통해 본 성 고정관념과 집단 긍정성 및 자아 긍정성

명시적 검사에서 나타난 자아 긍정성과 여성 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긍정, 부정 경향성은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나타날 것인가? 연구 1의 명시적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은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하였지만, 자아해석은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과 큰 차이 없이 높았고, 특히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잘못된 신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식수준에서는 수용하지 않지만, 자아와 관련해서는 자신을 고정형적으로 지각하는 “문화의 자연화”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의식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인의 자동적인 고정관념의 활성화 과정에서는 여성, 남성에 대한 판단에서도 고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정관념은 인생초기부터 습득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므로, 명시적 검사에서 고정관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라도, 암묵적 검사에서는 나타난다고 지적되어 왔다(Greenwald, 2002).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은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명시적 검사에서 나타난 자기 긍정성은 암묵적 수준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명시적 검사에서 고정관념 저 집단은 여성집단에 대한 긍정성을 보이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한편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성을 나타냈지만, 고정관념 고 집단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없이 긍정적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향적 반응이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2는 Greenwald 등(2000, 2002)의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사용하여 성 고정관념과,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긍정성 여부,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IAT란 이분법적인 사회적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로 분류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수정하거나 은폐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자아해석의 긍정적 편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Rudman 등(2001)과 Aidman과 Carroll(2003), Greenwald 등(2000)은 명시적인 방법보다는 암묵적인 방법으로 고정관념이나 자아에 대한 긍정적 연합을 더 잘 측정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연구 2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은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서도 성 고정관념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 (2) 실험 1의 명시적 검사에서 나온 것처럼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자아해석의 긍정성 경향이 암묵적 검사에서도 나타나는가?
- (3)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여성집단과 남성

집단에 대한 긍정성 경향이 명시적 검사 결과처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피험자

연구 1과 동일한 여대생(고정관념 고 조건: 37명, 저 조건: 35명 총 72명)

재료

성 고정관념과 자아와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긍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개의 암묵적 연합검사를 위한 재료가 준비되었다. 이 검사를 위해 두가지 유형의 범주명과 각각에 해당하는 개념이 선택되었고, 두가지 유형의 특성범주와 그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이 선택되었다. 성 고정관념과, 여성집단과 남성집단과 관련된 긍정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이재호 외, 2001)에서 사용했던 “여성이름” 범주와 “남성이름” 범주가 사용되었고, 자아에 미치는 긍정성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너” 범주가 사용되었다. “나”와 관련된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나”, “우리”에 조사를 붙여 10개의 나와 관련된 개념이, “너”와 관련하여 “너”, “너희”에 조사를 붙여 10개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범주는 “여성특성”, “남성특성”이 사용되었고, 긍정성과 관련해서는 “긍정특성”-“부정특성”이 사용되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형용사들은 예비검사를 통해 평정된 여성과 남성의 긍정특성과 부정특성 형용사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선택되었다. 연구 2에 사용된 범주명과 개념들은 다

음과 같다.

여성이름: 김미라, 이민정, 박복희, 최선화, 정수연, 강순자, 윤지영, 신은미, 한은정, 권선희

남성이름: 김성수, 이동수, 박동훈, 최명석, 정영석, 강일호, 윤태환, 신성일, 한문수, 권준호

나: 나, 나의, 내것, 우리, 우리들, 나를, 우리것, 내가, 우리가, 우리를

너: 너, 너의, 내것, 너희, 너희들, 너를, 너희것, 네가, 너희가, 너희를

여성특성: 아름다운, 상냥한, 따뜻한, 다정한, 세심한, 시샘하는, 까다로운, 속기쉬운, 수다스런, 속좁은

남성특성: 진취적인, 책임있는, 씩씩한, 적극적인, 힘있는, 난폭한, 잔인한, 음흉한, 허풍떠는, 방탕한

긍정특성: 아름다운, 상냥한, 따뜻한, 다정한, 세심한, 진취적인, 책임있는, 씩씩한, 적극적인, 힘있는,

부정특성: 시샘하는, 까다로운, 속기쉬운, 수다스런, 속좁은, 난폭한, 잔인한, 음흉한, 허풍떠는, 방탕한,

절차

명시적 검사에 근거하여 선정된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세 가지 IAT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와, 자아와 관련된 긍정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자신이 속한 여성집단과 관련된 긍정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이루어졌다. 세 개의 검사는 counter balancing 되어

제시되었으며, 한 검사가 끝난 후, 잠시 쉬 후 다음 검사가 실시되었다.

각 검사는 Greenwald의 방법을 따라 시행되었다. IAT는 5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에서 피험자는 컴퓨터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자극이 두 개의 범주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키보드 상에서 왼쪽의 A키와 오른쪽의 S키를 가능한 한 빠르게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다.

성 고정관념 검사에서는 1단계에서는 “여성이름” 범주에 속하는 이름이 나오면 왼쪽 키를 “남성이름” 범주에 속하는 이름이 나오면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형용사가 “여성특성”과 “남성특성”에 속하는 것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여성이름”이거나 “여성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남성이름”이거나 “남성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4단계에서는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을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고, 5단계에서는 “여성이름”이거나 “남성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남성이름”이거나 “여성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자아검사에서는 1단계에서는 “나”범주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너” 범주에 속하는 것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형용사가 긍정특성과 부정특성에 속하는 것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나”거나 “긍정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너”거나 “부정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4단계에서는 긍정특성과 부정특성을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고, 5단계에서는 “나”거나 “부정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너”거나 “긍정특성”에 속하는 자극

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각 개인의 반응에 걸리는 시간과 오류율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여성, 남성집단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여성이름” 범주에 속하는 이름이 나오면 왼쪽 키를 “남성이름” 범주에 속하는 이름이 나오면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형용사가 “긍정특성”과 “부정특성”에 속하는 것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여성이름”이거나 “긍정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남성이름”이거나 “부정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4단계에서는 “긍정특성”과 “부정특성”을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고, 5 단계에서는 “여성이름”이거나 “부정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남성이름”이거나 “긍정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검사는 도우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시행되었다.

결과 및 해석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암묵적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은 암묵적으로는 성 고정관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해 여성이름-여성특성/남성이름-남성특성을 연합시키는 반응시간과 오류율을 여성이름-남성특성/남성이름-여성특성과 연합시키는 반응시간 및 오류율과 비교해 보았다(표 2와 그림 3 참조). 그 결과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F_{(1, 70)} = .22, p > .05$),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고($F_{(1, 70)} = 3.32, p > .05$), 성 고정관념 효과만 나타나($F_{(1, 70)} = 183.53, p < .0001$),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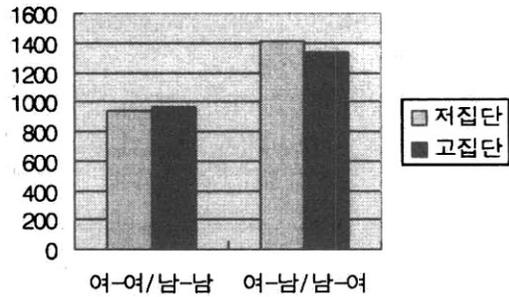


그림 3.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성 고정관념 IAT 반응시간

표 2.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암묵적 성 고정관념: IAT 반응시간(ms)과 오류율

집단		여성-여특/남성-남특	남성-여특/여성-남특	평균
저	반응시간	935.00 (202.75)	1408.06 (295.35)	1171.53
	오류율	.08(.07)	.17(.18)	.13
고	반응시간	967.09 (244.09)	1327.98 (256.67)	1147.53
	오류율	.05(.04)	.09(.09)	.07
평균		951.05	1368.02	1159.53
		.06	.13	.10

()는 표준편차

들은 모두 여성이름과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 남성이름과 남성 고정형적인 특성을 연합시키는 반응이 빨랐다.

오류율에서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저 집단이 오류율이 높았고 ($F_{(1, 70)} = 8.39, p < .01$), 고정관념 효과도 유의미하여 여성과 여성특성, 남성과 남성특성의 연합은 정확했지만, 남성과 여성특성, 여성과 남성특성의 연합은 오류율이 높았다($F_{(1,70)} = 16.28, p < .0001$).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_{(1, 70)} = 3.30, p < .05$).

이러한 결과는 명시적 검사 결과와는 다르다. 즉 명시적 검사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매우 커, 고정관념 고 집단은 성 고정관념을 전반적으로 수용하지만, 고정관념 저 집단은 성 고정관념을 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암묵적 검사의 반응시간에서는 두 집단 모두 여성과 여성적 특성의 연합, 남성과 남성특성 연합에 매우 빠르게 반응하였다. 이는 고정관념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고정관념 저 집단의 여성들일지라도 성 고정관념의 표상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류율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 저집단의 오류가 많기는 했지만, 저집단의 오류의 양상

역시 고집단과 유사했다. 즉 성 고정관념에 위배되는 연합(여성-남성특성, 남성-여성특성)에서 오류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여성들은 성 고정관념 표상과 일치할 때에는 반응시간도 빠르고 오류율도 적으나, 위배되는 형태로 연합을 시키게 될 때 반응시간이 느려질 뿐 아니라 오류율도 높은 것이다.

자아 긍정과 타인 부정 경향성

표 3과 그림 4는 고정관념 고집단과 저집단의 여성들이 모두 자신(나)을 긍정특성과 연합시키고 타인(너)을 부정특성과 연합시킬 때의 반응시간이 자신을 부정특성과 연합시키고 타인을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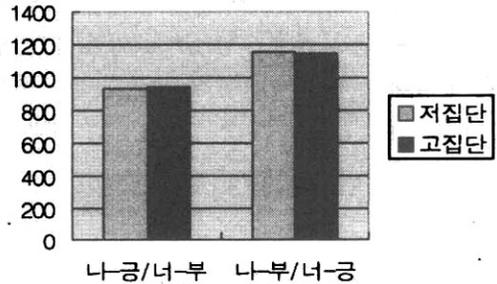


그림 4.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긍정성 반응시간

표 3.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긍정성 연합에 대한 IAT 반응시간(ms)과 오류율

집단		나-긍정/너-부정	나-부정/너-긍정	평균
저	반응시간	935.39 (194.64)	1153.31 (218.07)	1044.35
	오류율	.03 (.05)	.06 (.06)	.05
고	반응시간	947.39 (180.06)	1144.61 (224.13)	1046.00
	오류율	.04 (.04)	.04 (.04)	.04
평균	반응시간	941.39	1148.96	1045.18
	오류율	.04	.05	.04

()는 표준편차

정특성과 연합시키는 경우보다 더 빠름을 보여 주고 있다. 변량분석 결과, 자아 긍정성 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F_{(1,70)} = 122.44, p < .0001$), 고정관념 고 집단과 저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_{(1,70)} = .001, p > .05$), 집단과 긍정성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_{(1,70)} = .30, p > .05$). 한편 오류율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이나 긍정성 여부에 따르는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암묵적인 검사에서 여성들은 고정관념 고저집단 모두 자기를 긍정특성과, 타인을 부정특성과 연합시키는 반응은 매우 빠르지만, 자신을 부정적 특성과 연합시키고 타인을 긍정적 특성과 연합시켜야 할 때에는 반응이 느려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편향적 경향성으로 인해 자신과 긍정적 특성의 연합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자신과 부정적인 특성의 연합은 자동적으로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성 때문에 반응이 느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 긍정성과 관련된 암묵적 반응은 명시적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명시적 자아해석에서 고저 집단간에 차이가 없이 긍정적으로 자신을 해석했던 경향성은 암묵적 수준에서는 반응시간에 반영되어,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 긍정의 경향성은 그 개인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와는 독립적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제안했던 여성의 자기-부정적 경향성, 자기 거부의 특성들은 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특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긍정성과 남성 부정성

표 4와 그림 5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긍정특성과 부정특성을 연합시키는데 걸리는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반응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반응시간은 고정관념 고집단의 반응이 저 집단보다 약간 느리기는 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F_{(1,70)} = .56, p > .05$), 여성과 긍정특성, 남성과 부정특성을 연합시키는 경우의 반응이 여성과 부정특성, 남성과 긍정특성을 연합시키는 반응보다 유의미하게 빨랐다($F_{(1,70)} = 34.88, p < .0001$). 그리고 고정관념 고저집단에 따르는 긍정-부정성 효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_{(1,70)} = .00, p > .05$).

이와 같이 암묵적인 반응에서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 모두 여성을 긍정적 특성과 연합시키고,

표 4.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여성/남성에 대한 긍정성 반응시간(ms)과 오류율

집단		여성-긍정/남성-부정	여성-부정/남성-긍정	평균
저	반응시간	1052.14 (306.74)	1202.68 (271.54)	1127.41
	오류율	.06(.07)	.09(.10)	.07
고	반응시간	1094.84 (269.02)	1248.47 (245.43)	1171.66
	오류율	.05(.06)	.08(.11)	.07
평균		1073.49	1225.58	1149.53
		.06	.09	.07

()는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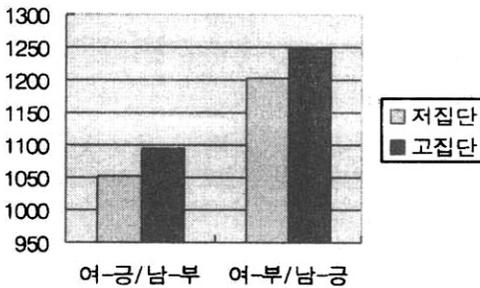


그림 5.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여성/남성에 대한 긍정/부정 반응시간

남성을 부정적 특성과 연합시키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빨랐고,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명시적 결과와 달라 흥미롭다. 즉 명시적 검사에서는 고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고정관념을 수용하면서 남성 긍정성 편향이 여성 긍정성 편향과 유사하게 나타났었다. 이러한 반응 경향성이 암묵적으로도 나타났다면, 고정관념 고 집단의 반응시간은 여성 긍정/남성 부정 반응시간과 여성 부정/남성 긍정 반응시간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하고, 고정관념 저 집단과 반응 양상의 차이를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고정관념 고 집단의 반응시간은 저 집단과 유사하였고, 여성 내집단 긍정성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정관념 고 집단이 보여주는 이러한 반응시간의 결과는 자아 긍정성과 내집단 긍정성이 성 고정관념보다 더 우선하는 것임을 입증한다.

종합논의

이상의 결과들에 대해 몇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명시적인 검사에서, 성 고정관념은 자아에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이 낮은 고정관념 저 집단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자연화 현상으로 논의되었고, 또한 자기 일관성의 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자아의 고정관념화(self-stereotyping) 현상은 자기 이행적 예언효과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긍정적 영역에서 자아 고정관념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사회가 부과하는 고정형적인 특성에 자신을 맞추어 감으로 습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성 고정관념이 자아에 수용되고 반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표상에 깊게 내재해 있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여성이름과 여성 특성, 남성이름과 남성특성을 매우 빠르게 연합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성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고정관념 저 집단의 여성들에게도 나타났다. 사실상 성별 범주는 이분법적이며, 현저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주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애 초기부터 습득하게 되고, 그에 부착된 의미인 성 고정관념을 배우게 된다. 게다가 성 고정관념은 일상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조건화되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반면 성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신념은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 된 이후에 발달되었기 때문에, 정보처리 과정에서 성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다음 그것을 의식적으로 수정하게 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의식화된 여성이라 할지라도 성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본 연구에서도 입증해 주었다. 즉 성 고정관념은 의식적으로는 거부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암묵적으로 작

용하여 자아에 반영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 고정관념이 자아와 남성, 여성의 판단에 반영되는 양상은 자아 긍정성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 고정관념을 아무런 평가 없이 자신과 내집단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명시적 검사에서 고정관념 고저 집단 모두 자아 긍정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암묵적인 검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는 자아긍정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가 아니면 성 고정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가? 암묵적인 검사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자동적인 연합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아 긍정성도 자동적으로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암묵적 검사에서 여성들이 드러내는 여성 내집단 긍정 경향과 남성 부정 경향은 여성들에게 성 고정관념 보다는 자아 긍정성 편향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성 고정관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고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명시적 검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모두 긍정적 편향을 보였었지만, 암묵적 검사에서는 고정관념 저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성집단 긍정적 편향을 보여 주었다. 만약 고정관념 고 집단이 성 고정관념의 영향을 자아 긍정성보다 더 크게 받고 있다면, 성 고정관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을 긍정특성과 연합시키는 시간이 남성과 긍정특성을 연합하는데 걸리는 반응시간보다 느리거나 아니면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적어도 고정관념 저집단과는 차이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여성에 대한 긍정특성 연합이 고정관념 저 집단과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은 자아 일관성과 더불어 자아 긍정성이 성 고정관념보다 우선해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여성들이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서는 자신이 속한 여성집단과 자아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나타내고, 자아를 보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여성들은 고정관념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매우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어 왔지만, 적어도 여대생들은 부정적인 자기 해석을 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긍정적 편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Crocker와 Major(1989)의 개관연구 결과를 다시 입증해 준다. 즉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사람들도 내집단 선호를 보이며 자아 긍정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이든 낮은 여성이든 모두 자기 긍정성과 내집단 긍정성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긍정성과 관련이 된다면 성 고정관념을 수용할 수도 있고, 성 고정관념을 억압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고정관념 저 집단은 성 고정관념을 전반적으로 거부하면서도 명시적 검사에서 긍정적 고정관념은 수용하고 있었고, 고정관념 고 집단은 성 고정관념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암묵적 검사에서 성 고정관념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남성들은 부정특성과 연합시키고 내집단인 여성은 긍정특성과 연합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성 고정관념의 대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지만, 자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긍정성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기 긍정성과 내집단 선호 현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일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긍정성은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므로 정신건강에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콜버그에 의하더라도 발달과정에서 아동이 성 유형화된 특성을

채택하게 되는 것은 자아 일관성과 자기 긍정성 때문이라고 한다. 즉 유목화 개념이 발달하면서 범주 개념이 확고해 지면, 동일 성별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더 가치를 두면서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자아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여성들의 이러한 긍정적 편향은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착한 여자” 처방을 스스로 수용하면서, 성 차별주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Fiske(1998)는 두 가지 유형의 성 차별주의를 제안하였다. 즉 적대적 성 차별주의와 우호적 성 차별주의이다. 그녀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우수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자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우호적 성 차별주의는 남녀 배열은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특징짓고, 여성의 호감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여성도 여성적 영역에서는 파워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호적 성차별주의가 겉으로는 여성의 긍정적 특성을 강조하고, 친절하며 부드럽지만, 결국 여성의 종속을 합법화시키고, 적대적 성 차별적 신념과 함께 진행된다. 즉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여성이 자신에게 할당된 긍정적인 특성을 벗어날 때, 적대적 성 차별주의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기-긍정성 편향 때문에 사회적으로 처방된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특성만을 기르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회는 착하고, 남을 잘 보살피며, 아름다운 특성을 여성의 긍정적인 특성으로 강조하고, 여성이 힘이 있고 지배적일 때 적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사회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호감 차원의 특성들만을 스스로 기른다면, 여성들은 자아 긍정성 경

향 때문에 자기 이행적 예언효과를 만들어내고, 고정관념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희 (2002). 자아개념의 철학적 분석: 여성의 자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02년도 추계 여성심리학회 학술대회: 여성과 자아 논문집, 1-9.
-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단서, 범주전형성 및 성별선호도의 상호작용.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6(3), 49-68.
- 조혜자, 방희정 (2003). 여성의 명시적 암묵적 자아해석에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8(3), 101-122.
- Aidman, E., & Carroll, S. (2003). Implicit individual differences: Relationships between implicit self-esteem, gender identity, and gender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19-37.
- Alicke, M.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621-1630.
- Ashmore, R., DelBoca, F., & Wohlens, A. (1987). Gender stereotypes. In R. Ashmore & F. DelBoca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Female-Male Relations*, 69-120. London, Academic Press.
- Baumeister, R. (1998). The self. In D. Gilbert, S.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680-740)*. NY: McGraw Hill.
- Boldry, J., & Kashy, D. (1999). Intergroup perception

- in naturally occurring groups of differential status: A social relations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00-1212.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NY: Charles Scribner and Sons.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Cross, S., Morris, M., Gore, J. (2002).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39-418.
- Deaux, K., & Lewis, L. (1983, May 12). *Assessment of gender stereotypes: Methodology and components*. Purdue University.
- Deaux, K., & Lewis,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Doosje, B. & Ellemers, N. (1997). Stereotyping under threat: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In R. Spears, P. Oakes, N. Ellemers, & S. Haslam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ereotyping and group life* (pp. 257-272). Cambridge, MA: Blackwell.
- Dovidio, J., Evans, N., & Tyler, R. (1986). Racial stereotypes: The contents of their cognitive represent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22-37.
- Fazio, R., Sanbonmatsu, D., Powell, M., & Kardes, F.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357-411). NY: McGrawHill.
- Glick, P., & Fiske, S. (1999). Gender, power, dynamics, and social interaction. In M. Ferree, J. Lorber, & B. Hess(Eds.), *Revisioning Gender* (pp. 365-398). NY, Sage.
- Glick, P., & Fiske, S. (1999). Sexism and other "isms": Independence, statu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 (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193-222), Washington DC, APA.
- Greenwald, A., Banaji, M., Rudman, L., Farnham, S., Nosek, B., & Mellott, D.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 Greenwald, A., & Banaji, M.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 1022-1038.
- Greenwald, A.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Hewitt, J. (2000). *Self and society: A symbolic interactionist social psychology*. Allyn & Bacon.
- James, W. (1890/1983). *Principles of psychology*. NY: Holt, Rinehart, & Winston.

- Kowalski, R., & Leary, M. (1990). Strategic self-presentation and the avoidance of aversive even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elf-enhancement and self-depreci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322-336.
- Lee, Y., & Ottani, V. (1995). Perceived in-group homogeneity as a function of group membership salience and stereotype threa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6), 610-619.
- Major, B., & Schmader, T. (1998). Coping with stigma through psychological disengagement. In J. Swim & C. Stangor (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 (pp. 219-241). NY: Academic Pres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Myers, D.,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elson, T.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Allyn & Bacon.
- Pickett, C., Bonner, B., & Coleman, J. (2002). Motivated self-stereotyping: Heightened assimilation and differentiation needs result in increased level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43-562.
- Rogers, C.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3)*. NY: McGraw-Hill.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64-1178.
- Schlenker, B. (1986). Self-identification: Toward an integration of the private and public self. In R. Baumeister (Ed.),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pp. 21-62). NY: Springer-Verlag.
- Sedikides, C. (1993). Assessment, enhancement, and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the self-evalu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17-338.
- Steele, C., & Aronson, J. (1995). Stereotype threat and the intellectual test performance of African-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97-811.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Austin (Eds.),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 Taylor, S., & Brown, J. (1999).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In R. Baumeister (Ed.),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pp.43-66). Ann Arbor, MI: Edwards Brothers.
- Trew, K. (1998). Identity and the self. In K. Trew & J. Kremer (Eds.), *Gender and psychology* (pp. 1-14). NY: Oxford Univ. Press.

Self-Positivity Bias or Gender Stereotype: Which is Primary for Women?

Hyeja Cho

Hee Jeong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ender-stereotypes and self-positivity bias on Korean women's self-construals and in-group and out-group perceptions. The results of explicit questionnaire which we developed to measure perceptions of male and female and self-construals showed that positive gender-stereotypes made effects on self-construals and in-group perception. But the results of IAT showed that even gender-stereotypes and self-positivity bias were automatically activated, self-positivity was prior to gender-stereotype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self-consistency, self-protect and self-fulfilling prophecy.

Keywords : self-positivity, self-consistency, gender-stereotype, self-fulfilling prophecy